

지난해 지역 소비자물가 10년래 최고

이상기온 영향 출하량 줄어 신선식품지수 올라
불확실성 확대 소득 감소·소비심리 위축 우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소비자물가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선식품지수가 크게 상승하면서 물가상승압력에 일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김대운 경제조사팀 과장이 발표한 ‘최근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 및 향후 점검’에 따르면 광주 지난해 1분기 소비자물가는 1.3%, 2분기 2.6%, 3분기 2.7%, 4분기 3.7%를 기록했다. 전남도 지난해 1분기 1.2%, 2분기 2.6%, 3분기 2.6%, 4분기 4.0%를 기록했다.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는 각각 2.6% 상

승해 2011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생활물가지수도 광주 3.5%, 전남 3.4% 상승하면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바구니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광주 8.2%, 전남 5.1% 상승해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신선식품지수는 밥상물가를 결정짓는 잣대로 기상여건과 출하량 등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다. 지역 물가오름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품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 상품물가 상승률은 2020년 0.8%에 머물렀으나 2021년 3.3%까지 높아졌

다. 서비스물가도 1.9%로 상승했다. 가을장마 등의 영향으로 2020년 8월 이후 농축수산물 가격이 10% 이상 급등했다. 지난해 4월 이후부터는 휘발유 등 자동차 연료를 중심으로 공업제품 가격도 잇따라 인상됐다. 서비스물가는 지난해 2분기 이후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전남지역 상품물가 상승률은 3.2%, 서비스물가 2.0% 상승률도 전년(상품1.1%, 서비스0.3%) 대비 인상됐다. 소비자물가는 식료품과 유류비 등을 중심으로 공급측 요인의 영향을 받아 인상됐다. 이후 하반기에는 내수 회복세로 외식비와 같은 서비스가격이 인상되는 등 수요측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가계의 체감 물가 상승뿐 아니라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도 작용했다. 올해 물가는 석유류와 난방비 등의 물

가 상승을 이끌었던 국제 원유가격은 점차 안정되고, 코로나 확산 이전부터 기상 악화, 병해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던 농축산물 가격이 재반등했으나, 지난해보다 가격 변동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대운 과장은 “지역 소비자물가는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개인의 지출품목이 변화해 코로나19가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수요·공급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는 가운데, 취약부문에 대한 정책 지원도 함께 고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애란 기자



광주신세계는 오는 30일까지 설 선물세트 본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사과·배 등 과일 선물세트에 주로 사용되는 종이박스는 무코팅 재생 용지에 키크림 인쇄로 화학 원료 비중을 줄인 박스를 제작해 제공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친환경·프리미엄 설 선물 준비하세요”

광주신세계, 과일선물세트 등 차별화

광주신세계는 오는 30일까지 설 선물세트 본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설에는 친환경과 프리미엄에 초점을 맞춰 소비자의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기존 라탄으로 만들어 재활용이 어려웠던 과일 바구니를 종이와 마 소재로 제작하고, 사과·배 등 과일 선물세트에 주로 사용되는 종이박스는 무코팅 재생 용지에 키크림 인쇄로 화학 원료 비중을 줄인 박스를 제작해 제공한다. /김혜린 기자

광주본부세관, 설 연휴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운영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설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설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은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통관,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다음달 4일까지 공휴일·야간을 포함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한다. 이와 함께 수출화물 선적의무기간(1개월)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신청을 처리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본부세관은 또 중소기업의 자금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오는 2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지원기간에는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밤 8시까지 연장해 운영하며, 서류심사가 필요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명절 이후에 서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연수 기자



순천 오네뜨 센트럴 투시도.

/남해종합건설 제공

‘순천 오네뜨 센트럴’ 전본주택 개관

남해종합건설, 24일 특별공급·25일 1순위 접수

남해종합건설은 순천시 조례동 1276-1 일대에 들어서는 순천 오네뜨 센트럴 전본주택을 개관했다. 청약 일정은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해당 지역, 26일 기타 지역 1순위, 27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월 7일이며, 정당 계약은 21~23일 3일간 진행된다. 단지의 전용면적 85㎡이하(349세대)는 가점제 75%, 추첨제 25%가 적용된다. 전용면적 85㎡초과(55세대)는 가점제 30%, 추첨제 70%를 적용 받는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순천시를 비롯해 전남도, 광주시에 거주(순천시 3개월 이상 거주자 우선 공급)하고, 청약 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상 경과한 만 19세 이상 세대주에게 주어진다.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순천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다. /이연수 기자

로컬푸드 출하농가에 토양개량제 지원

농협전남지역본부가 농업부문 탄소중립 기여와 로컬푸드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관내 45개 농축협의 로컬푸드 출하농가

에 대해 전남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토양개량제 5억3,600만원 상당을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출하농가 수에 따라 500

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대상농가는 로컬푸드 출하회 등록농가이다. 청년농·고령농·여성농·귀농·유기재배농가 등은 우선 선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시기는 1월말에서 2월 중순까지이다. /우성진 기자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에서

사업 파트너를 찾습니다

“개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계신 분”

“개발 사업 부지를 증계하고자 하시는 분”

“소유하고 계신 부지의 개발 파트너를 찾는 분”

성공을 위해 함께하는 골드클래스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골드클래스(주)

보광종합건설(주)

■ 문의 : 062) 233-3999 (내선 500, 503)

010-3637-3735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화정동)